

한국 과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왔다



최 상 일 박사

이런 발전이 계속하고, 다시 나아가서 선진국의 대열에 설려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재미과학회원 다수와 한국내의 여러 과학기술자들이 이곳에 모여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케 노력하여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고저 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하여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계속 유대를 가지고 모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과학과 기술은 20년전과 다르고 2차 대전과 6.25 사변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수많은 과학도들이 한국내외에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의 사업가들이 국제경쟁에서 자신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듯이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경쟁하여 두각을 나타낼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국의 과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왔다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구생활을 못하였습니다. 그때신 그분들은 수많은 후배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과학을 위한 밑 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젊은 과학자들은 연구생활을 할 의욕에 차 있습니다. 한국사회와 정부에서는 이들을 아끼고 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노력하면 한국의 과학과 기술이 세계 수준에 오를 때는 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살려면 고급기술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학없이 고급기술이 없고, 고급기술없이 현대 과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열역학이라는 기초과학을 이루었고 열역학의 발전이 기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좀 더 가까운 예로는 Radar와 Microwave Spectroscopy의 관계가 그러하였고, Transistor와 고체물리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기초과학자들과 고급 Engineer들이 한자리에 어울려서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갖게됨이 한국의 빛나는 앞날을 위한 한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과, 여기에 참석못하셨으나 이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끝맺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8. 7. 10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

會 長 崔 相 壹